



인성역사탐구프로젝트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20가지 이야기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

6학년 반 이름 :

목 차

1. 첫 번째 이야기.....	1	11. 열한 번째 이야기.....	21
2. 두 번째 이야기.....	3	12. 열두 번째 이야기.....	23
3. 세 번째 이야기.....	5	13. 열세 번째 이야기.....	25
4. 네 번째 이야기.....	7	14. 열네 번째 이야기.....	27
5. 다섯 번째 이야기.....	9	15. 열다섯 번째 이야기.....	29
6. 여섯 번째 이야기.....	11	16. 열여섯 번째 이야기.....	31
7. 일곱 번째 이야기.....	13	17. 열일곱 번째 이야기.....	33
8. 여덟 번째 이야기.....	15	18. 열여덟 번째 이야기.....	35
9. 아홉 번째 이야기.....	17	19. 열아홉 번째 이야기.....	37
10. 열 번째 이야기.....	19	20. 스무 번째 이야기.....	39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

첫 번째 이야기



내일은 2배

몹시 무서운 우리 선생님은 체육시간에 우리에게 명령했다.

“체력은 국력이다. 지금부터 한사람씩 나와서 팔굽혀펴기를 한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숫자만큼 열심히 해 주기 바란다.”

우리는 한 사람씩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나는 별로 자신이 없었다. 역시 나는 아무리 애를 써 보아도 1개밖에 할 수 없었다.

“이게 뭐야, 앞으로 팔운동을 더 열심히 해!”

선생님이 내게 외쳤다. 나는 머리를 굴적이며 제자리로 돌아왔다.

다음은 정수의 차례였다. 정수는 놀랍게도 50개나 했다. 아이들은 모두 정수를 부럽게 쳐다보았다.

“아주 잘 하는군.”

선생님도 정수를 칭찬하셨다. 신이 나서 제자리로 돌아온 정수는 나를 쳐다보며 악을 올렸다.



“비실아, 너는 이제 내 부하다. 알겠나?”

나는 시무룩하게 고개를 숙였다.

이윽고 체육시간이 끝날 때쯤 호랑이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다음 체육시간에도 팔굽혀펴기를 하겠다. 그때는 오늘 각자 기록한 숫자의 2배를 해야 한다. 그렇게 못할 땐 알지?”

의기양양하던 정수는 거의 울상이 되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div style="border: 2px solid purpl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margin: 0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1.</div> <p style="background-color: #800080; color: white;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첫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비실이라면? 정수처럼 누군가가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는 일로 놀렸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우리 학급에 비실이, 정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이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위로 또는 조언의 말을 써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2.

두 번째 이야기



늦은 까닭

유계와 민정중 두 사람이 한양에 급한 볼일이 있어서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났다.

어느 냇가에 이르러 다리를 건너게 되었는데, 유계는 무사히 건넜으나, 민정중은 말이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다리를 부수면서 짐과 함께 물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우선 유계가 먼저 떠나고 민정중은 행장을 수습하여 나중에 주막에서 만나기로 했다.

유계가 주막에 도착한 후 암만 기다려도 민정중 일행이 따라오지 않더니, 점심때가 되었을 무렵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길이 바쁜데 여태 무엇 하느라고 이렇게나 늦었소?”

유계가 묻자, 민정중이 웃으며 말했다.

“저는 크게 다치는 것을 면했으나, 뒤에 오는 사람이 제가 당한 것과 같은 어려움에 빠져서는 안 되겠기에 하인들과 다리를 다시 고쳐 놓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 생각해 볼까요

① 혹시 여러분도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행동한 적이 있나요?

② 모두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만,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③ 민정중의 행동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가요?

☺ 생각해 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나 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3.

세 번째 이야기



속이지 못하는 것

고려 중엽의 명신인 송동춘이 열 살 때, 집안 어른이 물었다.

“감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이 세 가지 말이 어떻게 다른지 아느냐?”

송동춘이 대답했다.

“엄격한 위엄이 있으면 남이 감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진 마음이 있으면 남이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마음으로부터 감복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으면 남이 능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 밝은 지혜에 끌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겠느냐?”

“차마 못하는 것이 첫째이고, 능히 못하는 것이 그 다음이고, 감히 못하는 것이 맨 아래입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3. 세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① 왜 거짓말을 했나요?

②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 생각해 볼까요

왜? 송동춘은 세 가지 말 중에서 차마 속이지 못한다' 는 말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4.

네 번째 이야기





직 분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이율곡이 김우옹을 찾아갔다가 “계여”라는 곳에서 자게 되었다. 때는 가을이어서, 창밖에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는데, 수십 마리가 일제히 울어대는 그 소리는 무척 아름다웠다. 김우옹이 감탄한 듯이 말했다.

“하찮은 벌레이지만, 자기 직분을 다하려고 저렇게 노래를 불러대는 것을 보니 기특합니다.”

그러자, 율곡이 말했다.

“약삭빠른 사람은 이익에만 밝습니다. 자기에게 이익 되는 일만 추구하고 행함으로써 그날그날을 편하고 수월하게만 지내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타고난 자기 천분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렇듯 자연에 사는 미물들은 어떨습니까? 하찮으나 자기 직분을 훌륭히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4. 네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직분의 뜻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을 찾아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지금 이 순간(6학년)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직분)은 무엇일까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5.

다섯 번째 이야기



참다운 아름다움

한 젊은이가 장가를 갔는데, 아내가 하도 수줍어해서 며칠이 지나도록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러나 우연히 부엌에서 나오는 아내의 얼굴을 훑쳐 본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살빛이 검고 여드름이 우둘투둘한 추녀였던 것이다.

그로부터 그들 부부 사이에는 대화가 끊어져버렸다. 아내는 열심히 일만 했고, 젊은이는 하루 종일 글만 읽었다.



그러면서도 젊은이는 속으로 ‘아내가 가엾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밖에서 돌아온 젊은이는 어디선가 무척 아름답고 슬픈 노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알았다.

소리 나는 곳을 본 젊은이는 깜짝 놀랐다. 이쪽에 등을 보이고 서서 빨래를 너는 아내였던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 없었다.

그는 비로소 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깨달았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5. 다섯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이 글에 말하는 참다운 아름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할 때 어떤 점을 우선으로 봐주었으면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6

여섯 번째 이야기



두 천사의 이야기

인간들의 기도를 모으려고 지구로 보내어진 두 천사에 대한 전설이 있다.

어느 날 신은 가장 아끼던 천사 둘을 불러 바구니를 각각 하나씩 주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의 기도들로 바구니를 채워오라는 명령을 내렸다.

한 천사에게는 명령을 받은 두 천사는 한 천사는 그의 바구니에 사람들의 소원



기도를 가득 채우려고 했다. 다른 천사는 그 바구니에 인간들의 감사 기도를

모으려 했다.

얼마가 지난 후 그들이 하늘나라로 되돌아왔다. 한 천사는 바구니가 넘칠 정

도로 인간들의 수많은 소원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인간의 감사를 담아 오겠다는

천사의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고 그 천사는 슬프고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왔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6. 여섯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왜 한 천사의 소원바구니는 가득 차 있고 다른 천사의 감사 바구니는 거의 비어 있었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① 지금 이 순간 여러 분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있나요?

②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자주 감사의 인사를 했나 반성해 봅시다. (지금 옆에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7.

일곱 번째 이야기



내일도 날

몹시 게으른 농부가 있었다. 남들은 들에 나가 일을 하는데도 집안에서 빈둥거리고, 어쩌다 밖에 나가서도 남의 논두렁이나 돌아다니며 말참견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농부가 농사철을 놓치면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 법이에요. 날씨도 청명하니, 내일은 제발 논갈이를 합시다.”

이튿날 아침 일찍 밥을 먹은 농부가 들에 나가려고 쟁기를 챙기는데, 이웃 친구가 찾아와서 강에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다.

“어허, 이거 곤란하군. 논갈이를 해야 하는데.” “여태 가만있다가 하필이면 오늘 논갈이를 하려고 그러나. 기왕 늦었는데, 내일로 미루고 같이 가세.”



원래 놀기 좋아하는 성미인지라, 두어 번 권하자 그만 따라 나서고 말았다.

그 날 강가에 가서 마신 술 탓으로 농부는 이튿날 종일토록 드러누워 있었다.

“내일은 꼭 논갈이를 해야지!”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튿날 비가 쏟아졌고, 또 다음 날은 소가 병이 나서 쟁기를 지울 수가 없었다. 게다가 가까운 집에 초상이 나서 다시 내리 닷새를 허비하고 마니, 마침내 모든 시기를 놓친 셈이 되고 말았다.

겨우 부랴부랴 논을 갈아서 모내기를 했으나, 이미 적기를 놓친 파종이기 때문에 소출이 평년작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이듬해 봄에 춘궁기가 오기도 전에 그의 집은 식량이 떨어져버렸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7. 일곱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 분도 해야 할 일을 미루어 어려움을 겪은 적은 없었나요? 있다면 그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에 어울리는 속담을 찾아서 써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밀천도 들지 않았는데요

어떤 부자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다. 목이 잘못 박혀서 얼굴이 앞을 향하지 않고 옆을 향해 놓인 것이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루는 침장이라고 하는 늙은 노인이 고쳐 주겠노라고 찾아왔다. “당신이 정말 내 목을 제대로 돌려놓을 수 있소?” “물론입니다.”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 고쳐 놓으시오.” “더도 말고 5000냥만 내십시오.” “5000냥이 문제요, 50000냥도 주겠소.”

그 노인은 침통에서 침을 꺼내 부자의 목에 돌아가면서 꽂았다. 그러니 참 이상하게도 부자의 목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정상이 되었다.

부자는 정상이 되고 보니 돈이 아까웠다. “밀천도 들지 않았는데 5000냥은 너무 많지 않소. 1000냥만 합시다.”하며 주지 않으려고 하였다.

노인은 “뭐 밀천도 들지 않았지요. 그런데 온전히 고치려면 침 한 대를 더 맞아야 합니다.”하면서 침 한 대를 더 찌렀다.

그러자 이상하게 그 부자의 목이 전과 마찬가지로 되었다. 그때 침장이 노인이 “밀천도 들지 않았는데요.”라고 하며 그냥 가버렸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8. 여덟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그 뒤 부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 분도 어려움을 겪었을 때의 처음 마음과 문제가 해결된 후의 나중 마음이 달라진 적은 없었나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9.

아홉 번째 이야기



목동의 상자

페르시아의 한 임금이 시골을 돌아보다가 총명하고 덕망 있고 부지런한 목동을 만났다. 그 목동은 처음에는 대궐의 마구간 일을 맡다가 오래잖아 궁중 살림을 맡는 중요한 자리로 옮겼다.

그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나라 일을 처리해 많은 칭송을 받았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은 목동이 자신의 집에 나라의 돈과 보물을 빼돌려 쌓아 놓았다고 모함하기 시작했다.

임금은 현명했으나 거듭되는 모함에 할 수 없이 목동의 집으로 가 보았다. 그러나 아무런 부정의 흔적이 없고 다만 조그만 상자 하나가 있었다.



“바로 이 상자입니다. 틀림없이 보물이 들어 있을 겁니다.”

간사한 무리들이 열어보자고 하였다.

드디어 상자가 열렸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옛날 그가 목동 시절에 입었던 헨 옷과 낡은 피리만 들어 있었다.

“폐하, 이것은 소신이 언제라도 궁전을 떠나고 나서 다시 목동 일을 하게 될 때 쓰려고 간직해 놓은 것입니다.”

목동의 대답이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9. 아홉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목동과 비슷한 가치를 지키며 삶을 살았던 위인들을 찾아 봅시다.

☺ 생각해 볼까요 여러 분이 생각하기에 어떠한 사람이 나라의 살림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0.

열 번째 이야기



힘든 것

한 왕이 훌륭한 학자를 궁궐로 불렀다. 왕은 학자에게 이렇게 물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하게 사는 것입니까?”

훌륭한 학자가 대답했다.

“나쁜 짓은 하지 말고, 착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왕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아니,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쉬운 것이 아닙니까?”

훌륭한 학자도 웃으며 말하였다.

“세 살 먹은 아이도 다 아는 것이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실제로 지키기는

힘든 것입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2px solid purple; border-radius: 50%;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right: 10px;"> 10. </div> <div style="background-color: #9933cc; color: white; padding: 10px 20px; border-radius: 10px;"> 열 번째 마음 열기 </div> </div>	
---	--	---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학자라면 왕의 물음에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나에게도 다 아는 일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있으면 5가지 이상 생각해 보고 써보세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나의 장점과 단점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노마네 반은 무척 소란하다. 아침에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시다가 화가 난 표정으로 “봉구는 오늘도 또 지각이로군” 하셨다.

그때 뒷문을 드르륵 열고 봉구가 교실로 들어왔다. 선생님과 반아이들은 모두 봉구를 쳐다보았고 봉구 자신도 어리둥절하여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



그때 병태가 선생님 비위를 맞추려는 듯이 “봉구는 작년에도 지각 대장이었대요.”

그러자 작년에 봉구와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이 한마디씩 했다. “봉구는 청소시간에 도망간 적이 있대요.”, “실내화를 신고 운동장을 잘 다녀요.” 봉구의 고개는 점점 더 수그러지고 선생님은 아까보다 훨씬 어두운 표정이었다. 노마는 아이들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때 나리가 벌떡 일어나서 “봉구는 집 잃은 아이를 찾아 준 적이 있어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또 다른 친구도 “봉구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시는 엄마 리어카를 밀어 드려요.”, “주운 돈을 파출소에 갖다 준 적도 있어요.”라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어두웠던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시면서 “봉구는 제자리에 가서 앉아요. 나리가 아니었다면 선생님은 너희들에 대해 실망할 뻔 했구나”하시면서 밝게 웃으셨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11. 열한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조금 못하는 것이 있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 생각해 볼까요

여러 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단점과 장점을 각 3가지 이상 생각하고 써 봅시다.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2.

열두 번째 이야기



사해와 갈릴리 바다

이스라엘에는 두 개의 바다가 있다고 하지. 사실은 호수지만 사람들이 바다라고 부른대. 하나는 ‘갈릴리 바다’고, 또 하나는 ‘사해’야. 이 두 바다를 이어 주는 강이 바로 요르단 강이지.

그런데 말이야. 이 갈릴리 바다는 물이 맑고, 고기도 많으며, 강가엔 나무가 자라고,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바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바다를 아주 사랑하지. 그런데 사해는 더럽고 바다에 어찌나 염분이 많은지 사람이 들어가면 똥똥 뜰 정도라는 거야. 그래서 이곳엔 고기도 살 수 없고 새들도 먹이가 없으니 살지 않고, 사람들도 이 바다를 아주 싫어한다고 해.

왜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 이렇게 차이가 날까? 왜 하나는 생명이 숨 쉬는 바다가 되고, 하나는 이름 그대로 죽음의 바다가 되었을까?

그것은 아주 간단해. 갈릴리 바다는 상류로부터 흘러 내려온 물을 받아 요르단 강을 통하여 내보내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거야. 받은 만큼 준다는 거지. 그런데 사해는 요르단 강을 통해 그 좋은 물을 받기만 하지 줄지는 몰라 더러워진 거래. 받기만 하고 줄 줄 모르면 다 이렇게 된대, 애.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2.

열두 번째 마음 열기



☺ 생각해 볼까요

- ① 혹시 누구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베풀지는 않았던 적은 없나요?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들은 누가 있고 여러 분이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에는 누가 있나 생각하여 봅시다.
- ② 그리고 사랑을 받고 베풀었었을 때의 마음도 생각하여 봅시다.

☺ 생각해 볼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3.

열세 번째 이야기



세 살 버릇



판중추부사 조경이 어느 대신의 집에 놀러 갔다. 그 집주인은 늦게 얻은 어린 손자를 몹시 귀여워하는 나머지 아주 버릇없이 키우고 있었다.

아이는 아무한테나 기어오르기도 하고, 곁에 있는 노인에게 상스러운 욕을 함부로 내뱉기도 했다. 그런데도 주인은 껄껄거리며 아주 즐거워했다.

“어린 것이 늙은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능히 욕을 하는 것은 기상이 범상하지 않은 증거인지라, 장차 우리 집안을 반드시 크게 일으킬 제목이 될 것이오.”

이 말을 들은 조경이 냉랭하게 말했다.

“어린아이의 심기는 아직 바르지 못하므로 비록 종아리를 때리며 어른을 공경하게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남을 모욕하는 행동을 가르쳐서 이것이 곧 버릇이 되어 성품으로 굳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안에 공경할 사람이 없다고 믿어 세상을 우습게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악을 범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하겠소.” 이 말을 들은 주인은 아무 말도 못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13. 열세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 분의 부모님께 반말과 함께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떨까요?

☺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부모님을 떠올려 보고 과연 여러분 자신은 부모님께 공경의 마음으로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반성하여 봅시다.

☺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과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4.

열네 번째 이야기



못난이 아기 토끼

어느 숲 속 마을에는 많은 동물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아기토끼도 끼어 있었습니다. 아기토끼는 지난겨울, 닢에 치어 구르는 바람에 한 쪽 눈이 멀고 다리를 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런 아기토끼를 보고 ‘못난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다른 동물들은 나만 보면 피할까? 내가 다리를 절고 눈이 멀었다고 놀려대는 것일까?’ 아기토끼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기가 보기에도 흉한 얼굴이었습니다.

아기 토끼는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났습니다. 못생긴 자기 얼굴이 미워서 죽어 버리고만 싶었습니다.

“에이, 이왕에 미움을 받을 바에는 내 멋대로 해야지.”



아기토끼는 중얼거리면서 다른 동물들이 노는 곳으로 모래를 뿌리면서 달려갔습니다.

“못난이! 못난이가 심통을 부린다!” “도깨비 같은 얼굴로 우리 친구가 되려고 하다니.”

다른 동물들은 악을 올리면서 도망을 갑니다. 아기토끼는 다른 동물들을 쫓아가다 말고 소리 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분한 마음이 좀 체로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툭툭 등을 두드렸습니다. 바람이었습니다. 바람은 아기토끼의 귀에 작은 소리로 속삭이고는 사라졌습니다.

“얼굴이 곱다고 마음씨가 다 고운 것은 아니란다. 네 마음이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것을 나는 알고 있지. 오늘부터 착한 일만 해보렴. 그러면 다른 동물들은 너를 ‘못난이’라는 놀려대지만은 않을 테니까.”

아기토끼는 귀가 솔깃했습니다. 바람이 일러준 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일주일이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일 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서 했지만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동물들이 하나 둘 아기토끼를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14. 열네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이 이야기의 토끼의 나중 행동에서 본받을 점은 무엇일까요?

☺ 생각해 볼까요

① 여러 분은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을 때,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② 혹시 모든 잘못을 타인에게만 돌리며 원망만 해본 적은 없나요? 혹시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았는지 생각하여 보고 앞으로의 다짐을 적어 봅시다.



착한 것과 악한 것

부처님이 어느 날 제자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다. 거리는 한산하여 지나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길을 걷다 보니 저 앞에 웬 종이가 한 장 떨어져 있는 게 보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저 종이가 무엇이나?”

그러자 제자가 달려가 그 종이를 주워 가져 왔다.

“아마 향을 찢던 종이인가 봅니다. 향기로운 내음이 배어 있습니다.”

제자는 종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서 그렇게 말했다.

그리고 또 한참을 가다 보니 이번엔 웬 새끼줄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그 새끼줄을 가져오라 했다.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걸 보니 이 새끼줄은 분명 썩은 생선을 묶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가 새끼줄을 가져오며 말했다.

그러자 부처님이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도 이와 같은 것이다.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썩은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처럼 고약한 냄새가 나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향을 찢던 종이처럼 맑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것이란다.”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5.

열다섯 번째 마음 열기



☺ 생각해 볼까요

어떠한 사람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 반대로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① 부처님이 제자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② 여러분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며 혹시나 자신은 어떠한지 반성하여 봅시다.

☺ 생각해 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5가지 이상 적어 봅시다.



도끼를 잃은 사람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 도끼는 푸른 날이 선, 아주 성능이 좋은 것이었다. 나무를 할 때 이 도끼는 매우 잘 들어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런데 바로 그 도끼를 잃어버린 것이다.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도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옆집 아이가 왠지 의심스러웠다. 자기가 도끼를 잃어버리고 난 뒤부터 옆집 아이는 자기를 보고 인사도 잘하지 않고 슬슬 피하는 것이 아닌가! 길 걷는 모습도 왠지 불안했다. 뭔가 죄를 짓고 눈치를 보는 듯했다. 음성도 떨려 나오는 것 같았다. 물론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이 명확한 증거라고 생각했다.

‘저 아이가 내 도끼를 훔쳐 간 것이 틀림없어. 어떻게 혼내줄 수 있을까?’

그 남자는 매일 아이의 거동을 살펴보았다. 범인은 바로 그 아이라는 생각이 더욱 굳어졌다.

그러나 그 후 얼마 안 되어 그는 잃어버린 도끼를 찾아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하다가 조심하지 않고 도끼를 산에 두고 왔던 것이다.

도끼를 찾은 다음 날 그는 또 옆집아子和 만나게 되었다. 그가 다시 이모저모 살펴보았더니 이번에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길 걷는 모양이나 말하는 음성 할 것 없이 그 일거일동이 물건을 훔친 사람 같지 않게 보였다. 물론 그 아이는 그전과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지만.....

<p>☺ 생각해 볼까요</p>	<p>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눈에는 왜 아이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을까요?</p>

<p>☺ 생각해 볼까요</p>	<p>만약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이가 훔쳐갔다고 확신하고 아이를 혼내 줬다면,</p> <p>① 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p> <p>② 그리고 도끼를 찾게 된 후 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요?</p>

<p>☺ 생각해 볼까요</p>	<p>혹시 여러분은 함부로 남을 의심해 본 일은 없었나요?</p> <p>생각해 봅시다.</p>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7.

열일곱 번째 이야기



물은 처음 그대로



한바탕 큰 전투를 치르고 나서, 부상당한 병사가 애타게 물을 찾고 있었다.

마침 군중 목사에게 얼마의 물이 남아 있었다. 목사는 수통을 그 병사에게 건네주었다. 병사는 무심코 그 물을 마시려고 하였다. 그 때 모든 소대원들의 눈이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느꼈다. 그들 또한 목이 타기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는 목마른 것을 꼭 참고 그 수통을 소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소대장은 그 수통을 받아 들더니, 입에 대고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부상당한 병사에게 다시 그 수통을 돌려주었다. 부상당한 병사가 물을 마시려고 보니 물은 그대로였다.

그 병사는 소대장의 뜻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병사는 수통에 입을 대고 소대장 처럼 꿀꺽꿀꺽 소리를 내며 맛있게 물을 마셨다. 그리고는 수통은 다음 병사에게로 전해졌다. 소대원들은 모두 꿀꺽꿀꺽 물을 마셨다.

마침내 수통은 군중 목사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수통의 물은 처음 그대로였다. 이제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p>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p> <p>17. 열일곱 번째 마음 열기</p>	
---	--	---

☺ **생각해 볼까요** 왜 병사들은 갈증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만약 누군가 진짜로 물을 마셨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 **생각해 볼까요** 혹시 여러분은 전체보다는 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여 본 적이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이야기의 교훈을 써보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8.

열여덟 번째 이야기



지금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어느 날 딸이 갑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엄마에게 갑자기 "엄마 나 없이도 살 수 있어?"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엄마는 "난 우리 딸 없어도 잘사는데.. ^-^"

이렇게 말을 해주었데요. 장난으로 넘겼던 거죠.

그런데 작은 소녀의 마지막 말이 "엄마 난 엄마 없이 못살아 ,

그래서 먼저 가나봐.. 사랑해,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엄마는..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전화 안에서...

"여기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 그래서 난 갇혀있는데,, 엄마밖에

생각이 안나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라,,ㅇ,,,ㅎ ,, ㅐ,,,"

마지막까지 사랑한단 말을 남기고...

전화기를 떨어 뜨렸데요.

그리고 나서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일어나신 걸 안 엄마는,,

하늘을 쳐다 보고.. 말하더라고요..

"엄마도 우리 딸 없이는 못사는데... 어떡하지?? 사랑한다.. 우리딸... "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때의 일화>

미국의 저널리스트 크리스토퍼 몰리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 인생이 단지 5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 모두는 당장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그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8.

열여덟 번째 마음 열기

☺ 생각해 볼까요

- ① 여러 분에게 남은 인생이 하루라면? 무엇을 할 건가요?
② 여러 분에게 남은 인생이 5분이라면?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나요?

[illegible]

☺ 실천해 볼까요

나중을 기다리지 마세요.. 적당한 때를 찾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지금 당장!!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9.

열아홉 번째 이야기



나의 아버지는 내가....

네 살 때 -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었다.

다섯 살 때 - 아빠는 많은 걸 알고 계셨다.

여섯 살 때 - 아빠는 다른 애들의 아빠보다 똑똑하셨다.

여덟 살 때 - 아빠가 모든 걸 정확히 아는 건 아니었다.

열 살 때 - 아빠가 어렸을 때는 지금과 확실히 많은 게 달랐다.

열두 살 때 - 아빠가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건 당연한 일이다. 아버진 어린 시절을 기억하기엔 너무 늙으셨다.

열네 살 때 - 아빠에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아빤 너무 구식이거든

스물한 살 때 - 우리 아빠 말야? 구제불능일 정도로 시대에 뒤졌지

스물다섯 살 때 - 아빠는 그것에 대해 약간 알기는 하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오랫동안 그 일에 경험을 쌓아오셨으니까.

서른 살 때 - 아마도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 보는게 좋을 듯하다.

아버진 경험이 많으시니까.

서른다섯 살 때 - 아버지에게 여쭙기 전에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었다.

마흔 살 때 - 아버지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다. 아버진 그만큼 현명하고 상 경험이 많으시다.

쉰 살 때 - 아버지가 지금 내 곁에 계셔서 이 모든 걸 말씀드릴 수 있다면 난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셨는가를 미처 알지 못했던 게 후회스럽다.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배울 수도 있었는데 난 그렇게 하지 못했다.

<앤 랜더즈,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중>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19.

열아홉 번째 마음 열기



☺ 생각해 볼까요

혹시 부모님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하여 봅시다.



아버지 건강하게 오래오래하세요. 광화문. END.

☺ 실천해 볼까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부모님 어깨, 다리 주물러 드리기!!!!

실패를 두려워 마라.



당신은 지금까지 수업이 실패해 왔다. 당신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당신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졌다.

처음으로 수영을 배울 때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 익사할 뻔한 적도 있었다.

처음으로 야구 방망이를 휘둘렀을 때는 공을 맞힐 수나 있었는가?

홈런을 가장 많이 친 사람들은 삼진 아웃을 가장 많이 당한 사람들이기도 하다.

야구왕 베이브루스는 삼진 아웃을 1330번이나 당했지만 또한 714개의 홈런을 쳤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시도해 보지도 않고 기회를 놓쳐 버리는 걸 두려워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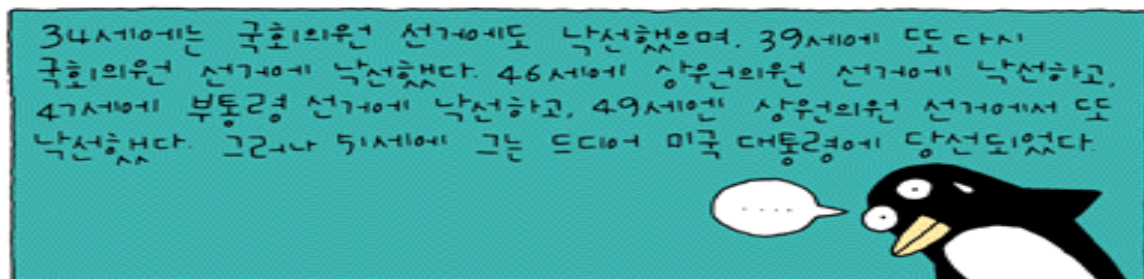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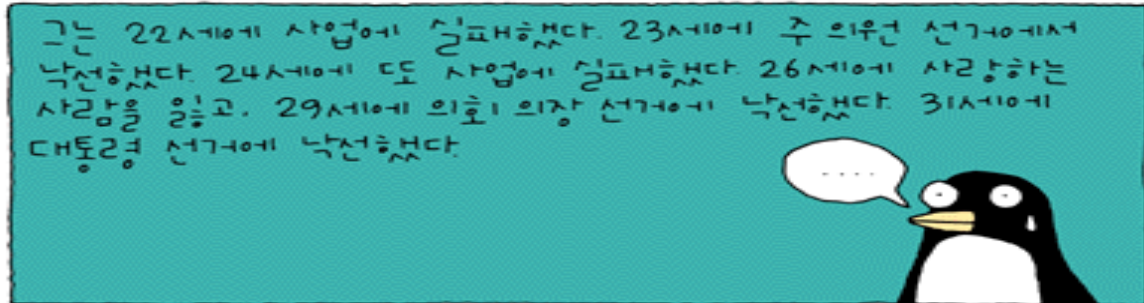
<월스트리트 저널 중>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는

20.

마지막 이야기



가장 중요한건 꿈을 버리지 않는것입니다. 끝. 생각. END.

☺ 생각해 볼까요

베이브 루스와 링컨의 일화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훈과 앞으로의 여러분의 다짐을 써보세요.
